

미얀마-중국, 송유관 가동과 짜옥퓨 경제특구 건설 합의

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 mlkim@kiep.go.kr)

주요내용

- ▶ 2017년 4월 6~11일 우 틸 쉐(U Htin Kyaw) 미얀마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수년 간 지체되었던 송유관 가동과 짜옥퓨(Kyaukphyu) 특별경제구역(SEZ) 건설을 시진핑 주석과 전격 합의함
- ▶ 이번 합의는 지난 정권 악화된 양국 정부 간 관계를 회복하려는 미얀마 정부의 균형외교와 일대일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으로 이뤄짐.
- ▶ 4월 합의 이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 정권 악화된 양국 관계가 지속적인 회복 기조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됨.

1. 이슈 현황

▶ 2017년 4월 6~11일 우 틸 쉐(U Htin Kyaw) 미얀마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수년 간 지체되었던 송유관 가동과 짜옥퓨(Kyaukphyu) 특별경제구역(SEZ) 건설을 시진핑 주석과 전격 합의함¹⁾

□ 24.5억 달러 규모, 길이 1,300km의 송유관은 미얀마 여카잉(Rakhine) 주와 중국 윈난 성을 연결하며 연간 원유 2,200만 톤(44.2만 배럴/일)을 수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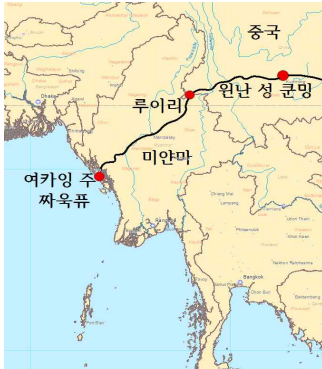
- 가동 협정에는 미얀마 정부와 중국석유공사(CNPC)가 서명하였으며 미얀마 정부는 운영 대가로 향후 30년 간 연간 원유 2백만 톤과 운송료(\$1/ton)를 받음.
- 여카잉 주에는 원유 저장소와 하역장이, 윈난 성에는 연간 석유 1,300만 톤 처리가 가능한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정제소가 위치함.

□ 100억 달러, 4,289 에이커 규모의 짜옥퓨 특별경제구역 건설 사업은 크게는 심해 항구(73억 달러)와 산업단지(23억 달러) 건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²⁾

1) 송유관 가동은 운송료에 대한 양국 의견 불일치로, 짜옥퓨 특별경제구역은 투자 방식(차관 혹은 BOT 방식의 합작 투자)에 대한 양국 의견 불일치와 현지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어 왔음.
2) Yimou Lee and Shwe Yee Saw Myint(2017), "Exclusive: China seeks up to 85 percent stake in strategic port in Myanmar," *Reuters*. (May 5)

- 2016년 중국 최대·최고(最古) 금융기관인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 중신) 그룹이 심해 항구와 산업 단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중신(CITIC) 그룹 컨소시엄은 태국 기업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국영기업으로 구성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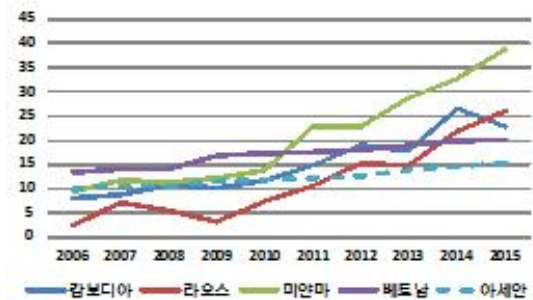
그림 1. 미얀마-중국 송유관, 짜옥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CLMV 중국 교역 의존도 (2006~2015년)

단위: %



자료: 아세안사무국(검색일: 2017. 05. 06).

2. 원인과 분석

➤ 이번 합의는 지난 정권 약화된 양국 정부 간 관계를 회복하려는 미얀마 정부의 균형외교와 일대일로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으로 이뤄짐.

- 2009년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최빈곤 지역 중 하나인 여카잉 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과 짜옥퓨 특별경제구역 건설에 합의하였음.
- 순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제2대 석유 소비국⁴⁾인 중국은 송유관을 통해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고도 아프리카, 중동 산 원유를 수입하고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2008년 미얀마와 송유관 건설에 합의한 바 있음.
- 미얀마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와 서구의 협력은 확대되었으나 우 떼인 세인(U Thein Sein) 정부 시기 중국의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인 뚝송 댐, 레파타웅 구리 광산 건설이 중단되고 짜옥퓨 특별경제구역 건설과 송유관 운영이 지연되는 등 양국 협력이 약화됨.
- 중국은 자국이 추진하던 뚝송 댐(36억 달러) 건설이 진척되지 않자 2017년 4월 댐 건설 포기 의사를 밝히며 손실배상 차원에서 짜옥퓨 사업을 포함한 다른 전략적 중요 사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번 합의가 성사됨.

3) 컨소시엄은 중신그룹, 중국항만건설(CHEC) 그룹, 초상국국제유한공사(CMH), 텐진테다주식회사(Tianjin TEDAIH), 윈난 건축공업(CCCME) 그룹, 태국 차로엔폭판드(CP) 그룹으로 구성됨.

4) 2016년 중국의 원유 수입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최대로 증가하였음.

- 벵갈 만에 위치한 짜옥푸 항은 송유관의 시작점이자 아시아를 넘어 타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중요한 항구임.

3. 전망과 시사점

▶ 4월 합의 이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 정권 악화된 양국 관계가 지속적인 회복 기조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됨.

- 짜옥푸 산업단지의 지분을 중신그룹 컨소시엄이 51%, 미얀마 정부가 49%보유하는 것에 양자가 합의하였으며 4월 합의 이후 미얀마 정부는 곧 짜옥푸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사회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18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 2017년 중신그룹 컨소시엄은 짜옥푸 심해항구 지분의 70~85%를 요구하였는데 2017년 5월 협상에서는 미얀마가 중신그룹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 미얀마는 2016년 심해항구 지분을 중신그룹 컨소시엄과 50:50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으나 중신그룹 컨소시엄이 이를 거절하였고 투자액과 지분율이 비례하기에 미얀마가 73억 달러 규모의 심해항구에 대하여 30%이상의 지분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은 2017년 5월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는 불참하나 5월 중순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포럼에는 참석할 예정임.
- 다만, 최근 미얀마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합의로 그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 미얀마의 대중 교역 의존도는 2006년 9%에서 2015년 39%까지 상승하였고 이는 2015년 아세안(15%), 캄보디아(23%), 라오스(26%), 베트남(20%)의 대중 교역 의존도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 **EMERiCs**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